

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친윤 인사들,
차기 국민의힘 당대표직 미끼로 이준석 후보 매수 시도
공직선거법상 후보 매수죄 혐의로 고발

- 이동훈 개혁신당 선대위 공보단장 21일 본인 페이스북에 친윤계 인사의 구체적 후보매수행위 적시
- 20~21일 어간 김문수 후보를 포함한 국민의힘 선대위 주요인사들 단일화 군불 및 정지작업
- 김문수 후보로의 단일화는 결국 내란 연장을 위한 대국민 정치사기극으로 기록될 것

□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22일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미끼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의 사퇴를 위해 뒷거래를 시도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불상의 친윤계 인사를 공직선거법상 후보매수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.

□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및 선대위 공보단장은 21일 본인 페이스북에 <단일화 러브콜?> 제하의 게시물에서 친윤계 인사들이 이 후보 측에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.

□ 이 공보단장은 해당 게시물에서 ‘당권을 줄테니 단일화를 하자’, ‘들어와서 당을 먹어라’, ‘대통령 후보는 김문수로 가자는 겁니다’ 라고 적시하고 있다.

□ 법률지원단은 김 후보와 친윤계 인사들은 ‘공사의 직’에 해당하는 국민의 힘 당권, 즉 ‘당 대표의 직 제공’을 매개로 이 후보에게 후보직 사퇴 거래를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했다.

□ 실제 김 후보는 지난 20일 “이(준석) 후보는 우리 당 대표를 하신 분”, “이 둘이 전혀

다르게 없다. 우리 당의 여러 문제점 때문에 밖에 나가계시는데,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점에서 계속 노력하겠다” 라고 언급하며 단일화를 위한 노력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바 있다.

□ 특히 김 후보는 21일 “다양한 견해를 나누면서 우리가 결국 함께 가야할 원팀이라는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미래를 공유하는 제안도 하고 있다” 고 말하는 등 양자간 단일화를 위한 정치적 교감 및 거래가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했다.

□ 또 이정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2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“이준석 후보와 단일화가 꼭 됐으면 좋겠다” 고 말했고 신동욱 선대위 수석대변인 또한 “이준석 후보의 어제, 그제 발언을 보면 이심전심 통하고 있는게 아닌가 기대한다” 고 말하는 등 김 후보를 포함한 국민의힘은 이 후보와 단일화를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던 상황이었다.

□ 박범계 법률지원단장은 “김 후보를 포함한 국민의힘은 전당적으로 이 후보와의 단일화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차기 당대표 직을 미끼로 이 후보의 사퇴라는 뒷거래를 시도하고 있었던 것” 이라며 “이번 단일화 거래는 후보 사퇴를 통한 단일화에 대한 직접적 대가로 당 대표직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일화 후 선거에서 승리하여 집권에 성공할 경우 정책연합, 공동정부 구성을 합의하는 방식과 그 구조가 달라 후보자 매수죄에 해당한다” 고 말했다.

□ 아울러 “나아가 김문수 후보로의 단일화는 결국 내란 연장을 위한 대국민 정치사기극으로 기록될 것” 이라고 덧붙였다. <끝>